

“전학이 선물한 두바퀴 인생”

두 바퀴로 쓰는 HE-스토리

15년째 사이클 외길 김주상

중2때 옮긴 학교 사이클부밖에 없어 '제2 이종범' 꿈 접고 자전거 잡았죠 올 시즌 두번째 우승, 쫓겨나기 승부 그랑프리 결승서 '화끈한 반란' 각오



김주상은 중학교 시절 야구선수로 활약했지만 전학 간 학교에 야구부 대신 사이클부가 있는 바람에 자전거와 인연을 맺게 됐다. 만약 그 학교에 축구부가 있었다면 지금쯤 홈런보호에 발탁돼 월드컵의 꿈을 키우고 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김주상(30·특선·유성팀)의 운명은 이사가 바뀌었다. 그는 인천 신원중학교 시절 '제2 이종범'을 꿈꾸며 운동장에서 땀을 쏟았다. 잠자리에서 땀 땀 국가대표를 거쳐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하고 있는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곤 했다.

하지만 세상 일이 뜻대로만 흘러가던가. 중학교 2학년 때 온 가족이 인천을 떠나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를 갔다. 전학 간 학교(전곡중)에는 야구부 대신 사이클부가 있었다. 김주상은 자연스럽게 야구 글러브를 벗고 자전거를 타게 됐다. 그 후 의정부공고, 경희대, 경륜운영본부 사이클팀을 거쳐 2006년 훈련원 13기로 경륜에 입문해 15년째 두 바퀴로 인생길을 달려오고 있다.

-4일 광명30회차 결승에서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을 차지했다.

“합계 편승된 특선급 경쟁자들의 기량 차이가 적어 경기 전에 부담이 컸다. 하지만 과감하게 쫓아가 승부수를 던졌고, 이것이 주효했다. 마크추입이 아닌 자력승부로 우승을 차지해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

체 대회를 여는데, 실전을 방불케 하는 몸싸움이 벌어진다. 또 멘토제를 도입해서 우수급은 선발급을, 특선급은 우수급을 지도하는데 기량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본인이 생각하는 장·단점은. “한번에 힘을 몰아 쓰는 추입과 쫓기기는 자신 있다. 하지만 선행은 경험이 부족한 탓인지 아직 어렵다. 훈련대 선행을 하면 스피드가 좋는데, 막상 경기에 들어가면 감각을 찾지 못한다. 임상욕심을 버려야 하는데 쉽지 않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주는. “2008년 8월에 개인사정으로 선수등록 취소가 되었다. 4개월간 벨로드롬을 떠나있다 2009년 1월에 복귀했다. 그때 우수급 결승에서 우승했는데, 눈물이 설 새 없이 쏟아졌다.”

-현재 특선급에서 인정하는 강자는. “인지환, 김민철, 박병하 선수 등 넘어야 하는 산들이 많다. 그 중 비선수 출신이지만 압도적인 파워와 뛰어난 경주운영 능력을 보여주는 (인)치환이는 강자 중에 강자다.”

-미혼인데 결혼 계획은. “10월 3일에 '품절남'이 된다. 팀 동료인 정진욱의 형수를 통해 대전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인 여자친구를 소개받았다. 예비신부가 결혼 준비를 전담해, 스트레스 없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다.”

“그랑프리 결승에 진출하고 싶다. 지난해엔 준결승 진출에 그쳐서 무척 아쉬웠다. 남은 기간 준비를 잘해 유성팀 동료들과 함께 멋진 반란을 꿈꾼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체력소모가 심한 계절인데 훈련은 어떻게 하고 있다.

“오전엔 팀훈련을 하고 오후엔 고기가 적을 위해 전문 트레이너를 고용해 맞춤형 도를 받고 있다.”

-유성팀 분위기를 알려 달라.

“류근희 지부장을 중심으로 28명 동료들이 가족처럼 지낸다. 하지만 훈련때는 경쟁이 장난 아니다. 정기적으로 상품이 걸린 자

질 수도 있다. ⑦과 협공이 가능한 진주-창원 성산 연합 ②순준호는 마크를 노릴 복병이다. ⑦-⑧ 복승에 주력하고 ⑦-⑧ ③-④ 쌍승을 받 치면 좋을 것 같다.

●광명 14경주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 ②김동환의 추입이 경주의 촉이다. 자력승부가 강점인 신에 ⑤류재열의 선행이 ②에 정면대전 할 것 같다. 경주운영이 좋은 ⑥배민구가 이들의 경합을 상대로 마크를 노릴 전망이다. ②-⑤ 쌍승에 주력하고 ②-⑥ 쌍승으로 받 치면 좋을 것 같다.



경륜위뉴스 현장 속보

주말경륜 출주표 | 30·31일

★우승후보 ○우승후보 △상대 스펙 불확시 경륜운영본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상제출: 경륜위뉴스 박영우·이영주, 경륜위뉴스 최원호

광명 경륜 (30일)

Table with columns: 번, 선수, 기수, 기어, 승률, 연, 3년, 특, 준, 비, 이, 회. Includes sections for 제1경주 through 제14경주.

광명 경륜 (31일)

Table with columns: 번, 선수, 기수, 기어, 승률, 연, 3년, 특, 준, 비, 이, 회. Includes sections for 제1경주 through 제14경주.

박정우의 승부경륜 집중분석 (30일)

광명 12경주

최근 광명결승에서 우승한 ②김주상의 추입 및 쫓기기가 경주의 촉이다. ②를 상대로 신에잡지 않은 경주운영을 보여주고 있는 ⑥정재열의 추입이 거세게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경합을 상대로 ④최비강의 선행 및 쫓기기와 강자 마크에 강점이 있는 ⑦박일호가 입상권이다. 그 중에서 ②-⑥ 쌍복승에 주력하면 좋을 것 같다.

광명 8경주

입상후보의 윤곽이 드러나는 경주다. 특점에서 앞선 ③최병길의 추입과 연속 입상중인 ⑤임영완의 선행이 '창과 방패' 대결을 벌인다. 이들이 경합할 경우 후미에서 ②구동훈이 마크로 반사이익을 노릴 것 같다. ②-⑤ 쌍복승에 주력하고 좀 더 좋은 배당을 노리던 소액으로 ③-② ②-⑤ 쌍승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다.

광명 13경주

최근 창원결승에서 우승한 ⑦김우현의 선행 및 쫓기기가 경주의 촉으로 나머지 착순을 찾는 편성이다. 강자 마크에 강점이 있는 ③이용희가 마크에 성공할 경우 추입 승부수를 던

토요일경마 출마표 | 31일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최, 이, 유. Includes sections for 서울 경마 and 제주 경마.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최, 이, 유. Includes sections for 서울 경마 and 제주 경마.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최, 이, 유. Includes sections for 서울 경마 and 제주 경마.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최, 이, 유. Includes sections for 서울 경마 and 제주 경마.

Table with columns: 마번, 마명, 성별, 종량, 기수, 조교사, 승승, 훈련, 최, 이, 유. Includes sections for 서울 경마 and 제주 경마.